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4호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

김세훈 스포츠경향기자

비대면 이사회 열어 공정위원 선임...징계 수위 등 심의 계획

윤리센터 징계 요구받은 탁구협회, 새 스포츠평정위 구성 완료

이동철 연합뉴스기자

장애인 스포츠 인권 과제 산적

갈 길 먼 장애인 스포츠 인권... '조레안 유명무실'

권민지, 오일령 JBS 기자

전 한규학 회장, 다수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 현 김학수 회장, 인권침해 직권남용 의혹 조사중

경남태권도협회, 임원 비리 부정 의혹으로 '도마위'

이선미 천지일보 기자

장애인의 날, 발달장애인과 특수체육 전공 학생들의 교실 밖 성장 이야기

함께 뛰며, 함께 배우는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의 특별한 수업

정태진 뉴데일리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교체 등에 대한 징계가능성 있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이슈 분석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임원 인센티브 지급, 국가대표 선수 교체 의혹 등으로 인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대한탁구협회를 통해 징계를 요구받았다. 유 회장은 16일 공개사과했다. 탁구협회는 공정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Q. 윤리센터가 유승민 전 협회장에게 제기한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A. 크게 두 가지다.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이다. 유승민 당시 협회장은 외부 후원금 유치 시 유치금 10%를 후원을 끌어온 임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문체부 승인 없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센터는 유 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선정한 선수를, 재심의 없이 다른 선수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Q. 센터는 왜 이런 조사를했나

A.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정 기관이다. 스포츠계 비리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조사해 90일 안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탁구협회, 유승민 전 회장에 대한 신고도 공식으로 접수됐고 센터는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경우 징계를 권고해야 하는 게 센터 의무다. 센터에서 조사된 사항들은 문체부, 대한체육회, 탁구협회 등에 공식인 문서로 전달된다. 이 또한 의무 규정이다. 센터는 징계를 직접 내릴 수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Q. 유승민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A. 지난 16일 회원종목단체장 간담회에서, 또 개인 SNS로 공개사과했다. “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실책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수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원이 절실한 종목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케팅·운영 제도 개선 추진 의사도 밝혔다. 신속하게 사과한 것은 일단 잘한 일이다.

다음 장 계속

Q. 이 사안은 앞으로 어디서 다루게 되나

A.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다룬다. 협회는 오는 18일 새 위원 구성을 승인한다. 위원회는 법조인, 체육계, 인권 전문가 등 7~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주요 스포츠 관련 단체들은 공정위원회를 무조건 뒤탈어야 한다. 공정위원회는 단체장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공정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검토한 뒤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단체에 대한 공헌도 등을 고려해 절반까지 줄어둘 수 있다.

Q. 유 회장이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A. 가장 큰 것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본인은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고 구두로 수차례 밝혔다. 결국, 개인 통장 및 협회 통장 거래 내역, 협회 회계자료 및 송금 기록 등을 오픈하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임직원이 인센티브 1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시점'도 회의 기록 또는 보고서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이 내부 회의·이사회 통과 등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인센티브 지급 이전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Q. 이 사안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례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A. 지난해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협회 임원진이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셔틀콕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협회 임원들은 적당한 회의 절차 없이 셔틀콕 일부를 특정 대회, 특정 지역에 배분했다. 문체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구입한 물품”이었다며 횡령, 배임을 이유로 경찰서 수사까지 의뢰했다. 언론들도 소위 ‘페이백’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협회를 비판했다. 문체부는 후원 물품 불법배포,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김택규 당시 회장 해임을 요청했고 협회 사무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탁구협회는 ‘외부’ 후원금 중 10%를 해당 임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배드민턴협회는 공금인 ‘보조금’으로 구입한 ‘현물’ 중 일부를 ‘단체’에 건넸다.

Q. 공정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

A. 공정위원회는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 징계 수준 등을 논한다. 배드민턴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판단할 경우,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관리 책임 소홀 정도가 인정돼 경고 또는 견책 수준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인센티브를 실제로 수령한 사람은 현재 규정상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어 조금 더 강한 징계(정직·자격정지 등)가 내려질 수도 있다. 탁구협회는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 전부 또는 3~5배에 해당하는 부과금까지 문체부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비슷하거나 이보다 강한 금전적 환수를 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과금 증액,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경고한 바 있다.

Q. 대한체육회장이 된 유 회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진 뒤 적법하게 매듭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유 회장은 이제 막 4년 임기 대한체육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유 회장은 스포츠계 공정성 제고, 비리 근절 등을 평소에 강조해왔다. 유 회장으로서도 이번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이 인정될 경우 징계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런 자세가 본인의 철학 및 주장과 부합하며 앞으로 체육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자료 출처: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144/0001033290?fbclid=IwY2xjawJuk_VleHRuA2FlbQlxMQABHqss7T7lGZtn2k_EecGSzO8_P68druY4UqNKmrrU-nxauVTegOV4RO7_ZzaO_aem_yXb5MMdsLoANy3jDr2v9og

윤리센터 징계 요구받은 탁구협회, 새 스포츠공정위 구성 완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탁구협회는 18일 비대면 이사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스포츠 공정위는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새롭게 구성했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공정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했다.

현행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 규정에는 위원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친 법조인과 스포츠 전문가, 인권 분야 종사자 중에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두게 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을 마침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탁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탁구협회는 최근 윤리센터로부터 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과 임직원 인센티브 부당 지급 등 사유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했던 추천 선수 A를 재심의 없이 B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고,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협회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다.

아울러 탁구협회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윤리센터는 이와 관련해 당시 탁구협회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협회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갈 길 먼 장애인 스포츠 인권... '조례안 유명무실'

체육관 안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시원하게 허공을 가르며 네트 위를 오가는 셔틀콕.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입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며 저마다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열정 앞에 신체적 한계는 어떠한 장벽도 되지 못합니다.

김연심 / 제주자치도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

"제 삶의 동반자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체육인 인권 보장 위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두 명으로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장애인 체육인들에겐 현실의 벽이 만만찮습니다.

장애인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97명 가운데 16.2%가 불공정한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17.4%가 언어와 신체 폭력, 따돌림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이 시행됐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3년마다 장애인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 계획을 수립해, 지원 방안과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매년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계획 수립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지난해 인권 침해 실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인 겁니다.

김소현 / 제주자치도 체육진흥과 주무관

"상반기 중으로 기본 계획 시행 계획 수립할 예정이고요. 올해 장애인 스포츠 인권 센터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 인권 관련 실태 조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된 장애인 스포츠인은 1,400여 명.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경남태권도협회, 임원 비리·부정 의혹으로 ‘도마 위’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전·현직 임원들이 비리와 부정 의혹에 휩싸이며 도민과 태권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참태권도실천연대 이정표 대표는 1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내 불법 행위를 고발하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 경남태권도협회 한규학 회장이 형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아교육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고, 협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김학수 회장과 진상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각각 인권침해 혐의와 태권도협회 내 부정·직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부회장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정표 대표는 "이러한 비리와 부정행위는 태권도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상남도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관련 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남체육회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경남태권도협회 김학수 회장의 인준 경과와 향후 처리 계획을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2024년 12월 실시된 협회장 선거 결과에 따라 김학수 당선인이 2025년 1월 7일 인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관련 민원이 접수돼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 이후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대한체육회는 “결격 사유가 확정되지 않아 인준 거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남체육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학수 당선인에 대해 2025년 1월 10일 인준을 승인했다. 단 “향후 법적 결과에 따라 인준 취소 여부를 행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뛰며, 함께 배우는 백석대 특수체육교육과의 특별한 수업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는 등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발달장애인 운동과 서비스 러닝’ 수업이다.

이 수업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특수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체험하며 실습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흥미를 유도하고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돕는 장애물 달리기, 발 피구, 협동 게임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팀별로 고안해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실습’ 위주로 한 학기 15주 수업 중 10주 동안 관내 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학교로 방문한다.

학생들은 이들과 파트너가 되어 직접 운동을 지도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서로의 벽을 허문다.

직접 수업에 참여한 특수체육교육과 1학년 박재영(20세 · 남) 학생은 “장애인을 위한 운동을 직접 기획하고, 그 운동을 함께 해본 경험은 교과서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며 “매주 운동하면서 서로 웃고 응원하는 순간들이 저를 더 성장시켰다”고 말했다.

양한나 특수체육교육과 교수는 “이 수업은 단순한 체육지도 실습이 아닌 학생들과 발달장애인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학생들은 이론으로 배운 장애 이해를 몸으로 체험하고, 발달장애인분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또래와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체육공단, 2025년 국가대표 국내 대학원 교육 지원금 수여

<https://www.news1.kr/sports/general-sport/5759676>

한국체육학회 25일 '스포츠주간기념 학술대회' 개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1212&plink=ORI&cooper=NAVER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5월8~9일 진주서 개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1_0003146308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오는 25일 전라남도에서 개최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11&news_seq_no=5108193

우 의장, 세계 한인체육회장 만나 "자부심 갖게 뒷받침할 것"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60062>

프로스펙스, FC서울과 장애인 체육 홍보 행사 개최

<https://www.etoday.co.kr/news/view/2463901>

"공공 체육시설, 카카오톡에서 예약하세요"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2012214429792>

충남도의회, 체육활동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함양 나서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731>

목포시,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21145654656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